

韓・日 集談會의 發展

民間外交 次元에서의 一翼되길

(大韓産業保健協會 副會長) 鄭 奉 哲

4月5,6日 兩日間に 걸쳐 日本京都에서 京都工場保健會 主管 中央勞働災害防止協會와 (社)全國勞働衛生團體連合會 後援으로 第1日은 京都掘川會館에서 第1部(午前) 第2部(午後)를 하고 저녁엔 總會 歡迎夕食會가 있었고 第2日에는 第3部로서 (午前) 京都工場保健會에서 會를 하고 이어 그곳 見學을 하였으며, 이는 現地 京都新聞에서 大書特筆로 報道되었다.

韓國側에서 勞働部 申昔奎局長 協會長 以下 任員 各大學關係者 産業體保健管理者 等約 40餘名이 參加하였으며 새로운 産業保健問題에 對한 研究 및 知見 發表와 相互情報 交換이 있었고 特히 第3部에서는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衛生管理制度와 活動이라는 主題 討論에서 매우 眞摯한 質問과 答辯等으로 始終하였으나 時間不足으로 아쉬워하면서 難題解決에 對한 宿題를 남긴채 閉幕하였다.

또한 今番行事를 主管한 京都工場保健會를 見學하고 그 施設 裝備 人的構成 運營方法에 對하여 매우 깊은 感銘을 받았다. 京都에는 元來 그러 큰 大企業體는 없고 京都自體가 工業都市

도 아니면서 中小企業主들이 勤勞者의 健康을 共同管理하기 爲하여 事業基金을 共同投資하여 (建物玄關에 參與會社의 名單이 揭示되어 있음) 設立發足 하였다고 하며 이는 우리나라 馬山센터와 同一한 性格이라고 할 수 있다.

職業病, 成人病, 癌關係 呼吸器 循環器系等 Part 別로 高度의 檢査施設과 裝備 専門 要員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醫師는 常勤 10名 外來專門家 20名 計 30名이 從事한다고 하며 全體職員 120名으로 今年度 豫算 18億圓 (豫防事業收入 9億, 治療特別事業收入 9億圓) 그中 人件費가 約 30%라고, 事業은 勤勞者 健診과 地域社會 一般市民 相對의 綜合檢診 (主로 成人病)을 하며 移動檢診 車輛도 胸部 X線 Gi 前立腺等 三種이며 特히 經直腸的 超音波 診斷裝置를 塔載한 健診車의 完成은 文字 그대로 世界에서 처음으로 만든 快舉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規模와 組織 施設等에 驚歎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 부럽기만 하였다.

7日(日)에는 京都名勝地 觀光에 우리 一行 21名이 參加하여 日本古都이고 日本佛

教의 發祥地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옛 百齊 新羅時代의 우리 祖上들이 開拓한 因緣이 있는 곳이라는 角度에서 이를 念頭에 새기면서 吟味하여 보았다.

京都觀光을 마치고 當日 저녁 6時 40分發新幹線을 타고 東京으로 가는데 出發後 約 30分程度 經過할 時에 列車內 放送으로 應急患者가 發生하였으니 乘客中에 醫師분이 계시면 協助를 求한다고 하기에 지나는 車掌에게 무슨 患者냐고 問議한즉 제발 協助를 바란다는 懇請이기에 赤手空拳으로 案内를 받으니 指揮車輛 專務寢室에 76歲의 老婆가 누워서 卒倒하였다고 하기에 診脈과 視診 問診으로 매우 火急을 要할 程度는 免한 것으로 判斷 絶對安靜을 要하는旨 患者에게 安心을 시키고 指定席에 돌아가려고 하니 專務室과 同一車輛에 있는 VIP席에 앉으라고 하기에 固辭하여도 짐을 半強制로 가져다가 特別席에 앉도록 하여 그後 몇차례 患者를 돌 보기는 하였으나 些少한 일에 너무 隆崇한 對遇를 하여 內心은 氣分이 나쁘지 아니하였고 東京驛에 下車할 때도 매우 親切한 人事를 받게되니 旅行中 醫師로서의 禮遇를 받은것도 愉快한 일이라고 自慰하면서 무엇보다도 그사람들이 眞摯한 勤務態度와 SERVICE姿勢에 對하여 無言의 教訓을 體得하

였으며 나아가 Asian game 과 Olympic game을 目前에 둔 우리들에게 切實한 問題를 던져주는 episode로 生覺하게 되었다.

우리는 日本과는 가깝고도 멀다는 말과 같이 近代史에 있어서의 過去傷處를 아직도 拂拭하지 못한 階層이 아직도 많은것 같고 우리도 너무 過去感情에만 執着하지 말고 또한 每事에 排他的 思考만 가질것이 아니라 雅量과 情誼로서 臨하여야 하고 各 部門에서 우리는 배울것이 너무 많은 事實을 알아야 할 줄 안다.

이번에 夕食宴에서 京都大學(醫) 佐野教授가 옆자리에서 對話中 自身은 大概의 外國 특히 東南亞는 안가본 나라가 없을 程度면서 韓國에만 못갔다고 하는데는 무엇인가 壁이 있는 것으로 推理되었으며 내가 15年前 京都에 가서 만났던 京都大食工科 安本教授(僑胞, 歸化, 韓國訪問事實없음)의 安否를 물으니 自身과 知面이 두텁다고 하면서 暫間나가서 安本教授의 自宅 電話를 알려주시기에 Hotel에 와서 通話할 수 있었으며 두 분이 明年 第3次集談會에 오실것을 約束하기도 하였다.

本集談會가 더욱 發展하여 民間外交로서의 次元에서도 一翼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歸國길에 올랐다.